

“목표는 6강... 선수로서 도전 더 하고싶다”



광주FC 최고참 이종민
“올 시즌 계약 끝나는데
제대로 된 실력 보여줄것
후배들 팀 적응 도우며
클래식 잔류 이상 도전”

“올해 목표는 잔류가 아닙니다. 6강입니다.”
 광주 FC의 최고참 이종민(34)이 말하는 2017시즌의 목표는 ‘6강’이다.
 연령별 대표팀을 거쳐 수원 삼성, 울산 현대, FC 서울 등 빅클럽에서 뛰면서 279경기를 소화한 16년차 베테랑.
 광주에서 4번째 시즌을 맞는 이종민은 올해도 팀을 대표하는 수비수이자 최고참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더 늘었다. 1년 후배 정조국이 강원 FC로 떠나면서 선배로서의 짐이 더 무거워졌다.
 이종민은 “처음 선수단 미팅을 하면서 새로 온 선수 일어나보라고 하니깐 반 이상이 일어나더라. 처음 광주에 왔을 때 있던 후배들이 없고 많이 바뀌었다. 내가 새로운 팀에 온 부분이다”며 “나이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할 텐데 그

런 친구가 없어서 아쉽다. 후배들이 내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내가 오히려 눈치를 본다”고 웃었다.
 중간중간 선수가 없다면 하나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더 조심스러운 최고참이다.
 이종민은 “(조)성준이가 입단 연도가 언제냐고 묻기에 2002년이라고 답을 하니깐 애들이 놀라더라. 2002월드컵을 보고 축구를 시작한 후배도 있다. 나이 차이가 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 명령하는 게 될까봐 걱정이다. 직접 내가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할 수 있어서 성준이나 (주)현우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그게 애로 사항이다”며 최고참의 고충을 이야기했다.
 수비수범과 팀을 묶는 것은 최고참 이종민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나이 많다고 뒤에 처질 수는 없다. 앞에서 끌 수는 없지만 후배들이 형도 뛰는데 나도 뛰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한다. 나름 노하우는 있는데 안에서 뛰면 덜 뭉개 된다”며 웃음을 터뜨린 그는 “어린 선수들이 새로운 팀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후배들 적응을 우선 돕겠다. 그래도 요즘 선수들은 많이 긴장을 하지 않고 당돌하게 한다. 나는 신인 때 힘들고 운동하면 다리가 떨려서 못했다. 내 다리가 아니었다(웃음). 동계훈련을 하다 보면 부상, 컨디션 난조가 오기도 한다. 열심히 하되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종민에게 올 시즌은 광주와 약속된 마지막 해이다. 더 오래 뛰고 싶은 만큼 그는 지난해와 다른 올 시즌을 준비하고 꿈꾸고 있다.
 이종민은 “작년에 부상으로 동계 훈련을 제대로 못 치러서 부족한 게 많았다. 나이가 있어서 부상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동계훈련을 못 하면 시즌 때도 힘들고 잘 안 된다. 힘들어도 이 두달을 잘 버티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지난해에는 무조건 경기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경기에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선수로서 도전을 더하고 싶다. 중요한 해다”고 언급했다.
 6강이라는 목표도 그에게는 자극제다. 자신감은 넘친다.
 이종민은 “(정)조국에게 나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많이 의지했다. 조국이 덕분에 뉴스가 많이 생기기도 했다. 이제 우리가 조국이의 역할을 분배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팀은 다 같이 노력해서 이뤄내는 팀이다.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하더라도 좋은 광주가 될 것이다”며 “올해 우리의 목표는 잔류가 아니다. 좋은 팀들과 경기를 하며 배우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기려고 한다. 지난해 수원 삼성의 홈에서 이긴 적이 있는데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이 난리가 났다. 좋은 팀들을 이기면서 6강에 오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새 시즌 바뀌는 규칙

킥오프 볼 뒤로 차도 된다

페널티킥 속이면 취소

올 시즌부터 K리그에서 킥 오프시 공을 처음 터치할 때 앞으로 차지 않아도 된다.
 손과 팔은 오프사이드 적용을 받지 않고, 페널티킥시 골키퍼를 속이는 동작으로 킥하면 페널티킥 취소와 함께 경기가 주어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 같은 내용의 바뀐 경기 규칙을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017시즌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축구 규칙을 재·개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지난해 6월 새로운 경기 규칙을 만들어 새 시즌부터 적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경기 규칙에 따른 눈에 띄는 변화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킥 오프시 킥 터치 진행 방향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처음 터치한 공은 무조건 전방으로 움직여야 했으나 2017시즌부터는 어느 방향으로 공을 차도 상관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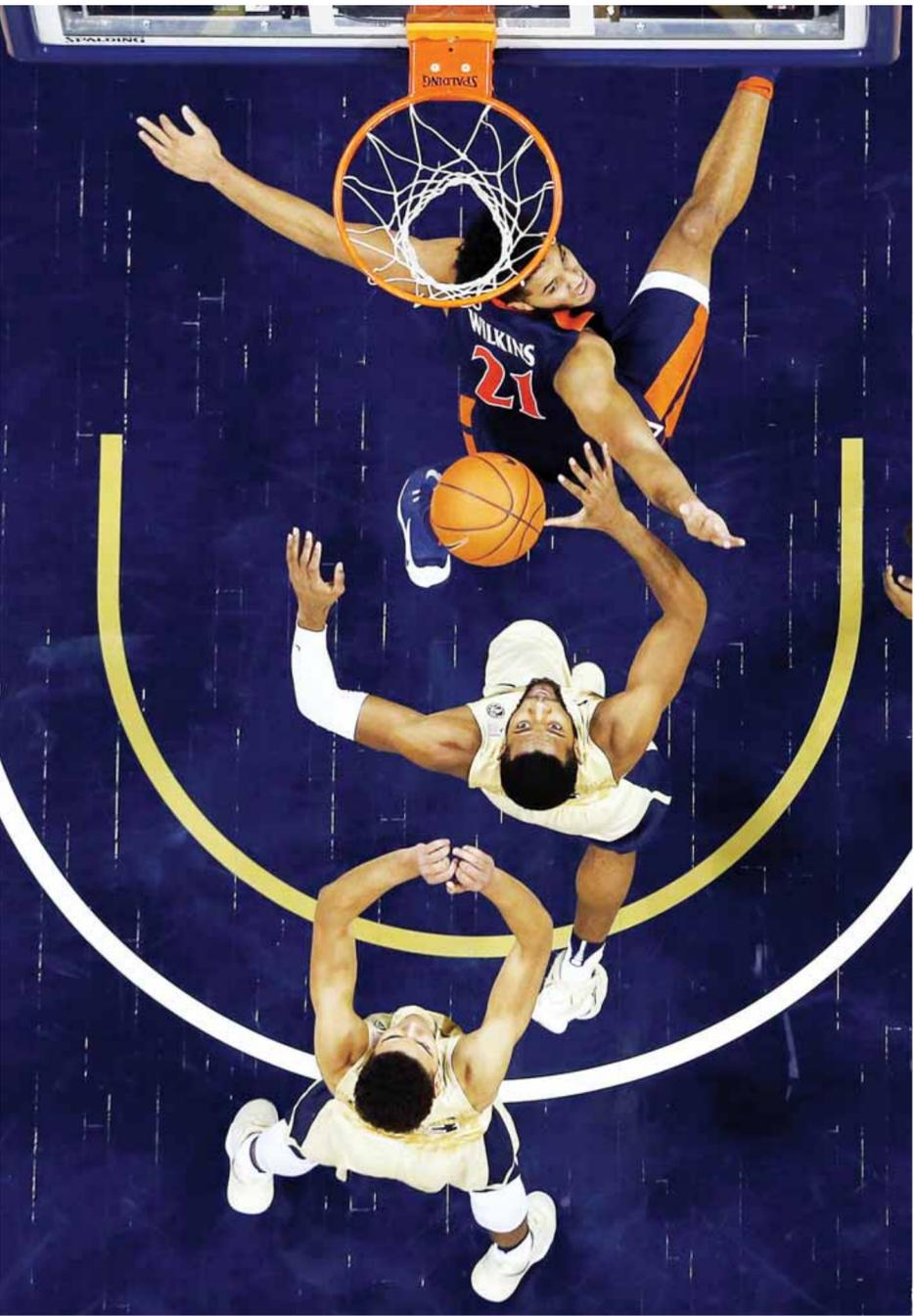
오프사이드 판정 기준은 완화됐다.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할 때 선수의 손과 팔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골킥 축구가 더 가능해졌다. 페널티 박스 내 징계도 완화됐다. 이 지역 내에서 결정적 득점기회를 파울로 저지할 때 지금까지는 페널티킥은 물론, 퇴장에 사후 징계의 처벌이 내려졌다.

그러나 올 시즌부터는 파울의 특성과 강도,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장 대신 옐로카드가 내려질 수 있다.

페널티킥 관련 규정은 더 엄격해진다. 킥 직전에 골키퍼를 속이는 동작으로 득점하면 킥을 다시 했으나, 이제는 카커에게 옐로카드를 준다. 또 페널티킥은 취소되고, 상대편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가 재개된다.

비디오 판독 시스템도 도입된다. 그라운드 밖 ‘제 4의 부심’이 주심과 협의하여 골, 페널티킥, 직접 퇴장, 제재선수 확인 등 결정적 상황의 판정을 내린다.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경기 중 발생하는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은 영상으로 정확한 판정을 내리게 된다.

또 선수는 양말과 같은 색깔로 테이핑을 해야 한다.
 /연합뉴스



내 공이야! 4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페터슨 이벤트 센터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NBA) 피츠버그 팬터스와 버지니아 캐발리어스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바르샤 3인방 등 U-20 포르투갈 전훈팀 확정

이승우·백승호·장결희... 금호고 김정민 등 25명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대표팀이 베스트 멤버로 해외 전지훈련을 떠난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6일부터 3주간 포르투갈 전지훈련에 참가할 25명의 U-20 대표팀 명단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소집 명단에는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는 이승우와 백승호, 장결희 등 3인방이 포함됐다.
 이들 3명이 한꺼번에 U-20 대표팀에 승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KFA)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조영욱(고려대 입학 예정)과 한찬희(전남), 박한빈(대구), 우찬양(포항) 등 기존 주축 멤버들도 발탁됐다.
 고교 졸업 후 올해 바로 K리그 클래식 무대를 밟는 김진아(인천), 이승모(포항), 윤준규(FC서울) 이상현, 문정민(이상 울산)도 선발됐다.
 /연합뉴스

고등학교생으로는 유일하게 김정민(광주 금호고)이 뽑혔다.
 연령별 대표팀 경험이 한 번도 없다가 지난 제주훈련에 처음으로 소집된 하승운(연세대 입학 예정)도 다시 뽑혔다.
 바르셀로나 소속 세 선수 이외의 해외 파로는 오스트리아 2부리그 SV호른 소속의 김재우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U-20 대표팀은 16일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돼 바로 리스본으로 출국한다.
 현지에서는 포르투갈 U-20대표팀과 친선경기를 갖고 스포르팅 B팀 등 현지 팀들과 네 번의 연습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신대용 감독은 “이번 포르투갈 훈련은 대회를 앞두고 장기간 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에 조직력과 전술 이해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마흔살까지...이랜드FC 김영광과 5년 계약

프로축구 2부리그 서울 이랜드FC가 골키퍼 김영광(34·사진)과 2022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5일 발표했다.
 3년 전 이랜드FC 창단 멤버로 합류한 김영광은 이번 5년 계약으로 40세가 되는 2022년까지 같은 팀의 골문을 지키게 됐다.
 김영광은 지난 시즌 39경기에서 32실점 기록, 경기당 0.82실점의 좋은 성적을 냈고 17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2006년 독일 월드컵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국가대표를 지낸 김영광은 “40세까지 성공적인 선수 생활

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승격의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이랜드FC 한만진 대표는 “김영광은 우리 구단이 명문으로 기틀을 다지는데 상징적인 존재”라며 “창단 후부터 구단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한 선수로서 팬 중심의 구단 가치관을 숭시수범해 리드해온 점을 인정해 장기 계약을 맺게 됐다”고 계약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2-0로 승리하자 위고 요리스(오른쪽)과 에릭 다이어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리 2골... 토트넘, 첼시 14연승 저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리그 역대 최대 연승에 도전한 첼시에 제동을 걸었다.
 토트넘은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첼시와 홈경기에서 2골을 몰아넣은 델리 알리와 2어시스트를 기록한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콤비 플레이를 앞세워 2-0으로 이겼다.
 토트넘은 이날 승리로 5연승을 달리며 승점 42로 맨체스터 시티에 골독실에 앞서 3위로 뛰어올랐다. 첼시(승점 49)와 승점차도 7점으로 줄었다.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손흥민은 정규시간이 다 끝난 뒤 후반 추가시간인 92분이 돼서야 교체 출전해 2분간 뛰었다. 첼시의 연승행진은 '13'에서 멈췄다.
 양 팀은 전반전에 견고한 수비 축구를 펼쳤다.
 이날 경기 전까지 첼시는 19경기 13실점으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구단 중 가장 적은 실점을 기록했다.
 토트넘도 14실점으로 리그 두 번째로 실점이 적었다.
 양 팀은 수비 라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채 경기에 나섰다.
 토트넘은 안 페르통인과 토비 알더베일ert, 에릭 다이어가 스리백으로 나섰다. 첼시도 개리 케일, 다비드 루이스,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가 스리백을 구성했다.
 경기는 예상대로 방패 대 방패의 싸움으로 전개됐다.
 양 팀은 전반 막판까지 유효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양 팀의 첫 유효슈팅은 전반 추가시간에 나왔는데, 이 슈팅이 골로 연결됐다.
 토트넘은 전반 추가시간 에릭센의 프리킥 크로스를 델리 알리가 골대 왼쪽 앞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첼시(승점 49)와 승점차도 7점으로 줄었다.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손흥민은 정규시간이 다 끝난 뒤 후반 추가시간인 92분이 돼서야 교체 출전해 2분간 뛰었다. 첼시의 연승행진은 '13'에서 멈췄다.
 양 팀은 전반전에 견고한 수비 축구를 펼쳤다.
 이날 경기 전까지 첼시는 19경기 13실점으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구단 중 가장 적은 실점을 기록했다.
 토트넘도 14실점으로 리그 두 번째로 실점이 적었다.
 양 팀은 수비 라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채 경기에 나섰다.
 토트넘은 안 페르통인과 토비 알더베일ert, 에릭 다이어가 스리백으로 나섰다. 첼시도 개리 케일, 다비드 루이스,